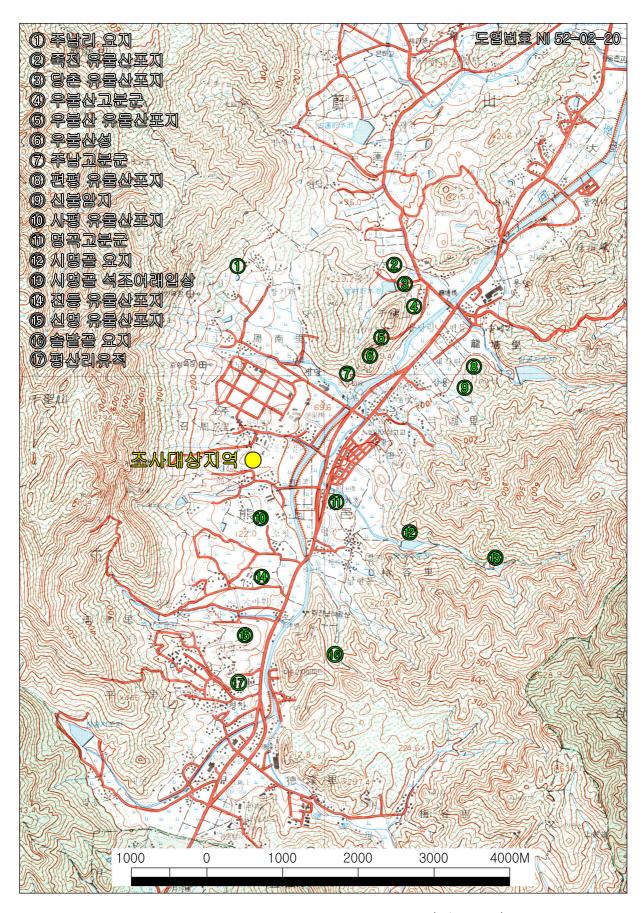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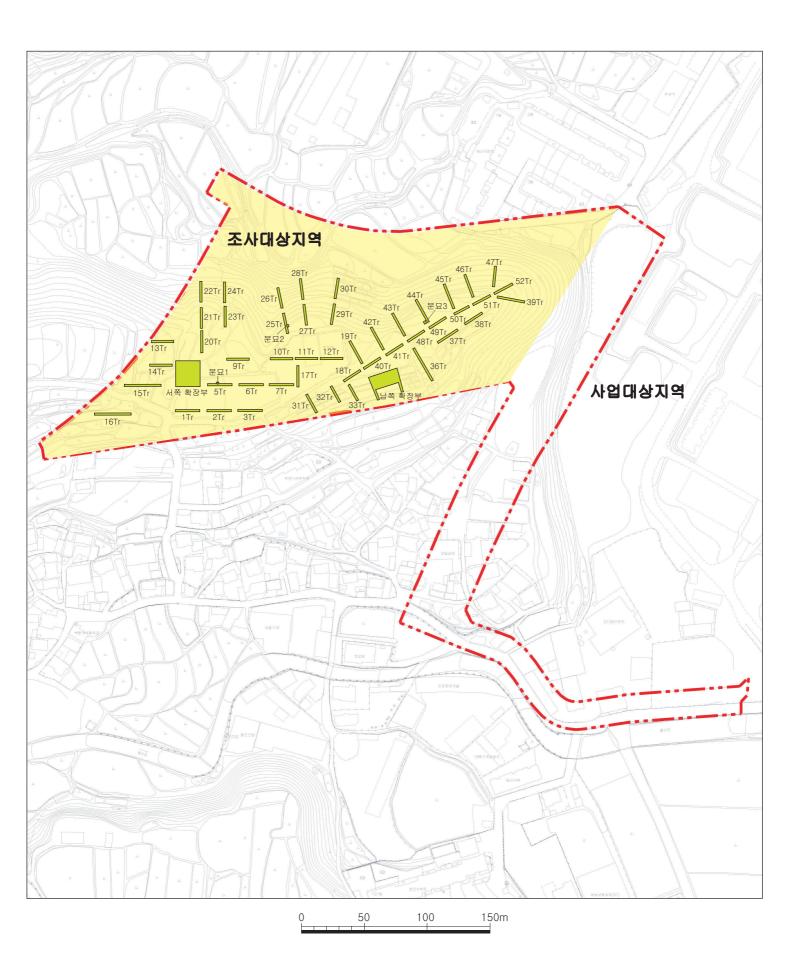
# 양산 소주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發掘(試掘)調査 現場說明會

2009.3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트렌치 배치도(1/3,000)

## I. 조사개요

#### 1. 조사명

양산 소주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 2. 조사대상지역 및 면적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 및 373-4번지 일원(42,653m²)

## 3. 조사기간

2009년 1월 23일 ~ 2009년 3월 15일(실조사일수 : 35일)

##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5. 조사단 구성

조사 단장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지도위원: 이영식(인제대학교 교수, 도문화재위원)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나동욱(부산박물관 학예연구관)

책임조사원 : 최은아(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조 사 원 : 권종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보 조 원: 전유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6. 조사의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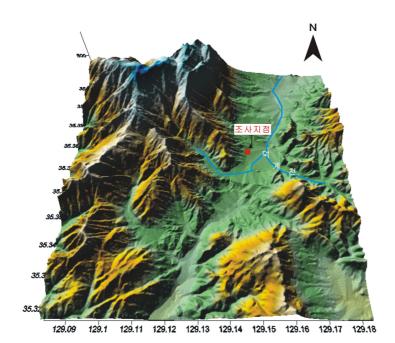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 Ⅱ.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 및 373-4번지 일원으로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이다. 이 지역은 2004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의 자기편과 기와편 등이 채집되어 '백동유물산포지'로 보고된 곳이다. 이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앞서 우리 연구원에서 2006년 2차에 걸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계단식 경작지 및 구릉의 3개 지점에서 삼국~조선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어 발굴(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는 공사시행에 앞서 공사구간내의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 및 분포범위,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따른 다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Ⅲ. 조사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변유적

## 1. 자연환경



도면 3. 조사대상지역의 광역지형도

조사대상지역은 동해 안에 인접한 태백산맥의 남동쪽으로서 비교 적 험준한 산세를 보이 는 신불산(1208m)·가 지산(1239m)·천성산 (922m)으로 연결되는 양산단층의 남동쪽에 해당한다.다. 조사지역의 북서쪽은 크고 작은 산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천성산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이어져 내려 오는 작은 구릉에 속한 다.

#### 2.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유적

#### 1) 주남리요지(周南里窯址)1)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산 45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가마터로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기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천성산 자락의 북에서 남으로 형성된 설상대지에 입지하며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중이다. 주변 논에 물을 대는 상보못의 북편에 가마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구릉의 단면은 절개된 상태이다. 유물은 분청사기편, 회청자편,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 2) 죽전 유물산포지(竹田 遺物散布地)의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118~120번지 일원에 해당되며 울산시와 경계를 이루는 죽전마을의 동쪽 구릉상에 위치한다. 유적의 일부는 택지개발로 절반 이상이 파괴된 상태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로 추정되는 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 3) 당촌 유물산포지(堂村 遺物散布地)의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907-1번지 일원의 계단식 경작지, 과수원, 임야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이다.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청자편, 조선시대의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어 청동기~조선시대에 걸친 생활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 4) 우불산고분군(于弗山古墳群)4)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80번지 일원의 우불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3부 능선상에 위치한다. 공동묘지 조성과 도굴 등으로 인해 유적의 일부는 파괴된 상태이며 노출된 유구는 삼국시대의 석곽묘로 추정된다. 도굴갱과 현대 분묘 주위에서 사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과 고배편, 장경호편과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유적의 입지나 유물의 성격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및 삼국시대고분군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sup>1)</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sup>2)</sup>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sup>3)</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sup>4)</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 5) 우불산 유물산포지(于弗山 遺物散布地)5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95-1번지 일원의 우불산 북봉 남측사면에 위치한다. 유물은 납석 채석을 위해 개설된 소로 주변에서 단경호로 추정되는 경질토기편, 기 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물의 성격이나 입지로 볼 때, 于弗山城과 연관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며 근거리에 우불산고분군이 위치한다.

#### 6) 우불산성(于弗山城)6)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2-3~6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유적은 남과 북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우불산의 북봉 정상부 외곽과 남동쪽의 곡부로이루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축조되었다. 성내의 지형은 정상부는 평탄한 반월형의대지이고, 그 외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성벽은 모두 붕괴되어 원상을 유지하는 부분이 없으며 북측 성벽은 납석 채취로 인하여 성벽의 기저부까지 훼손된상태이다.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었지만 잔존 상태로 보아 체성의 규모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체성의 구축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인근의 할석들이며 부분적으로는 냇돌이 포함되어 있다.

#### 7) 주남고분군(周南古墳群)で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산 91~93번지 일원의 우불산 남쪽의 돌출된 구릉 상에 위치한다. 현재 유적 내부는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식재된 임야이고 도굴과 현대분묘의 조성으로 유적의 상당부가 파괴된 상태이다. 유구의 대부분은 석곽묘로 추정되며 부분적으로 소형 봉토분도 확인된다. 도굴로 인해 노출된 석곽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유적 전반에 걸쳐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유물은 신라토기의 전 기종이 망라되어 있으며 5~6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8) 편평 유물산포지(片坪 遺物散布地)®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71-1번지 일원의 구릉말단부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이다. 유적 내부는 구릉의 골안에 형성된 대지로 계단식 경작지와 대나무 숲, 근대의 분묘군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소로와 경작지의 표토에서 발견되는데, 파상문이 시문된 삼국시대의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녹청자편과 조선시대의

<sup>5)</sup>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sup>6)</sup>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查報告書』, 1996.

<sup>7)</sup> 東亞大學校博物館,『伽倻文化圈遺蹟精密地表調查報告書』, 1986.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查報告書』, 1996.

<sup>8)</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분청자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 다양한 유물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 9) 신불암지(新佛庵址)의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74-1번지의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 농장과 대나무 숲, 계단식 밭 등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농장의 축대와 경작지의 표토에서 격자문, 집선문, 파상문 등이 시문된 기와편과 전돌편이 수습되었다. 유물의 성격으로 볼 때 고려시대 사지로 추정되며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신불암의 옛 터라고 한다.

#### 10) 사평 유물산포지(沙平 遺物散布地)10)

조사대상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산 156·491전·492답 일원의 구릉 말단부와 모래들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현재 유적 내부는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 중이며 전면과 측면에는 마을과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1996년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시 청동기시대마제석기가 채집되었으며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된다.

####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산 44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명곡리 북서쪽에 말발굽모양으로 형성된 두개의 봉우리 중 남쪽에 해당한다. 현재 유적 내에서 수많은 도굴갱이 확인되는데, 파괴된 유구의 형상으로 볼 때 토광묘와 석곽묘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며 토광묘는 구릉의 정상부와 남동쪽 사면, 석곽묘는 주로 북서쪽에집중해 있다. 도굴갱 주변에는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해 있다.

#### 12) 시명골요지(時鳴谷窯址)12)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산 6·7번지 일원에 있는 명곡저수지의 북서변에 위치한다. 원래 대운산 기슭의 남사면에 분포했던 가마터지만 최근 명곡저수지가 조성되면서 유적의 대부분은 수몰된 상태이다. 유물은 주로 저수지 안의 수중과 분묘 주변에서 백자종지, 백자완 등이 수습되었다.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용기를 굽던 가마

<sup>9)</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sup>10)</sup>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sup>11)</sup>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sup>12)</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터로 추정된다.

#### 13) 시명골 석조여래입상(時鳴谷 石造如來立像)13)

시명골요지를 끼고 개설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시명사 경내에 위치하는 화강암제 여래입상이다. 舟形 광배를 지니며 불신에 비해 불두가 큰 편인데 마모된 얼굴은 최근 시멘트로 보강된 상태였다. 법의는 통견이며 가슴 위로 올린 왼손에 약합을 들고 있는 약사불이다. 대좌 밑에는 사방에 사천왕상이 조각된 방형 대석을 받치고 있는데, 원래 용도에서 전용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신체비례나 조각수법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 14) 진등 유물산포지(진등 遺物散布地)14)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산 55번지 일원의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회야강이 북쪽으로 흐르며 구릉의 남·북 양측으로는 구릉을 따라 실개천이 흘러 회야강으로 유입된다. 현재 유적 내부는 밭과 축사, 과수원, 조경림, 임야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유물은 주로 경작지의 지표에서 무문토기편이 수습된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된다.

#### 15) 신명 유물산포지(신명 遺物散布地)15)

천성산 자락이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에 이르러 동쪽으로 길게 돌출된 설상대지에 위치한다. 유적이 입지한 곳은 저평한 구릉지로서 정상부는 평탄대지를 이루고 있어 취락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경작지의 표토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16) 솔밭골요지(솔밭골窯址)16)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남쪽에 위치한 계곡 상류의 북동사면에 위치한 백자가마터이다. 현재 경작지와 분묘의 조성 등으로 파괴된 상태이지만 요벽, 요도구, 흑유자기편, 백자편 등이 구릉사면에 산재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용기를 굽던 가마터로 추정된다.

<sup>13)</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sup>14)</sup>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sup>15)</sup>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sup>16)</sup>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 17) 평산리 유적(平山里遺蹟)17)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평산마을의 북동쪽 구릉에 위치한다. 1996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7동, 삼한시대 주거지 16동과 환호, 토 광묘 1기 등이 조사되어 우리나라 환호취락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가 되고 있다.

18) 양산 평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유적 발굴 조사<sup>18)</sup>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352-7번지 일원의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다. 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부지로 2008년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구릉 정상부에서 평면 말각방형으로 수혈식 노지 및 벽구를 내부시설로 갖춘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

<sup>17)</sup> 東亞大學校博物館,『梁山平山里遺蹟』, 1998.

<sup>18) (</sup>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양산 평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 명회 자료집』, 2008.

## Ⅳ.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울산-양산으로 흐르는 회야강의 서안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7번 국도, 서쪽으로는 소주 서류지, 북쪽으로는 세신아파트에서 서쪽 밭으로 진입하는 소로를 경계로 하는 지역으로 千聖山(해발 922.2m)의 동쪽에서 뻗어 내린 약100~130m 정도의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조사당시 정상부와 능선사면 일대는 계단식 경작지로 개간되고 있으며 정상부는 한일 플라스틱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철거된 상태였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서→동)

트렌치는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너비 3m, 길이 10~30m로 총 52개소를 설치하였다. 트렌치의 내부조사는 고고학적인 생토층이 확인되는 깊이까지 단면 토층조사와 평면 조사를 병행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트렌치 조사결과, 원지형의 훼손이 적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릉 서쪽 정상부  $20\times20m$  구간과 지표조사 당시 유물이 집중적으로 수습된 남쪽 사면부  $10\times20m$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제토를 실시하여 유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 2.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의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고 사면부는 비교적 완경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발굴(시굴)조사는 상기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를 구분하여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도판 2. 조사후 근경(동→서)

#### 1) 트렌치의 양상

조사대상지역은 일부 삭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토층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1트렌치의 토층을 통해 조사대상지역의 전반적인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트렌치의 토층은 크게 3개층으로 나누어진다. I 층(Hue 5YR 3/6)은 현대 경작층, Ⅱ층(Hue 5YR 4/8)은 적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강하고 풍화암반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Ⅲ층(Hue 5YR 4/8)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다.





도판 3. 1트렌치 전경(남서→북동)

도판 4. 1트렌치 토층

트렌치 조사 결과, 조사구간의 서쪽에 위치한 4트렌치와 8트렌치의 바닥면에서 溝가 노출되어 유구의 분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20×20m 범위로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트렌치 상에서 노출된 구는 내부에서 비닐 등이 수습되어 근・현대의 경작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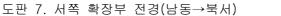


도판 5. 4트렌치 전경(동→서)

도판 6. 8트렌치 전경(동→서)

또한, 우리 연구원에서 2006년 실시한 지표조사 당시 유물의 수습 빈도가 높았던 남쪽 사면부는  $10\times20$ m 범위로 전면제토를 실시한 결과, 계단식 경작과정에서 원지형의 상당부분이 삭토되어 유구는 잔존하지 않았으며 귀얄문 분청사기편 소량이상부 표토층에서 수습되었다.







도판 8. 남쪽 확장부 전경(동→서)

그리고 지표조사 당시 한일플라스틱공장이 위치하였던 구릉정상부는 현지표에서 1m 깊이까지 산업폐기물이 매몰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은 공장 조성과 지속적인 경작과정에서 형질변경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10. 10트렌치 북벽 토층 퇴적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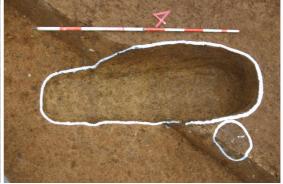
#### 2) 분묘

조사구간 내에서는 시기미상의 분묘 3기가 조사되었다.

5트렌치에서 확인된 분묘 1호는 표토층 직하에서 기반층인 명황색 풍화암반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212cm, 너비 67cm, 잔존 깊이 54cm이다. 분묘는 대체로 등고선과 직교되게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U'字狀의 함몰양상은 관찰되나 보강토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판 11. 5트렌치 전경(동→서)



도판 12. 분묘 1호 조사 후 전경

25트렌치에서 조사된 분묘 2호는 기반층인 명황색 풍화암반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나 기반층의 경도가 강하여 벽면과 바닥면은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 대체로 등고선과 직교되게 조성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242cm, 너비 108cm, 잔존 깊이 40cm 이며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판 13. 25트렌치 전경(북→남)

도판 14. 분묘 2호 조사 후 전경

44트렌치에서 조사된 분묘 3호 역시 기반층인 명황색 풍화암반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분묘는 등고선과 직교되게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242cm, 너비 108 cm, 잔존 깊이 40cm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판 15. 44트렌치 전경(북→남)



도판 16. 분묘 3호 조사 후 전경

## Ⅵ.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 1.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 및 373-4번지 일원으로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이다. 이 지역은 2004년 통도사성보박물관, 2006년 우리 연구원의 정밀지표조사결과, 삼국~조선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구릉 정상부의 입지조건상 생활유구가유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발굴(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발굴(시굴)조사는 지형적 조건에 따라 52개의 트렌치를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였다. 트렌치 내 토층퇴적양상은 표토(현대 경작층) · 적갈색사질점토층(자연퇴적층)으로 대별되며 대부분 현 지표하 10~30cm에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노출되는 단순 퇴적층으로 형성된 곳이다.
- 3. 유구의 유존 가능성이 높은 구릉 정상부의 2개소에 대해서는 20×20m, 10×20m로 확장하여 평면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층과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릉의 정상부는 공장조성 및 근·현대의 경작과정에서 원지형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4. 그리고 5·25·44트렌치에서 검출된 분묘 3기에 대한 내부 수습조사 결과,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축조시기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 5.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참고할 때, 수습조사된 시기미상 분묘 3기 외에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미 절토 등 형상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다만, 공사진행 중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적법한 처리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現場說明會 第156輯

양산 소주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 發掘 試掘 調查 現場說明會

인 쇄 일 / 2009년 3월 3일 발 행 일 / 2009년 3월 4일

# 編輯·發行 / 點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055) 265-9150~3 FAX: (055) 265-9154

E-mail: feaci03@hanmail.net